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29 호

2013년 4월 18일(목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3월중 소비자 물가 4개월만에 하락
- 2) 3월중 산업생산 예상밖 상회
- 3) 3월중 주택착공건수 5년래 최대 급증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G20 재무장관회의, 통화가치 평가절하 경쟁 견제 합의 예상
- 2) 한국 증시 약세는 매수 기회
- 3) NYT, 최근 미국 경제의 '이상현상' 지적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금 가격, 온스당 800달러 걱정하다는 학술보고서 주목
- 2) 도요타 자동차, 미국내 럭셔리 생산 계획 발표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3월중 소비자 물가 4개월만에 하락

- 지난 4월16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월비 0.2% 하락했다고 발표
 - 한편, 전문가들은 보합세를 예상한 바 있음
- 변동성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.1%를 기록, 전문가 예상치 0.2%를 하회
 - 의류 가격도 1% 하락을 기록하여 2001년 4월 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임
 -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격은 0.1% 하락한 반면, 중고차 가격은 1.2% 상승
 - 의료 서비스 가격은 0.3% 오른 것으로 집계
- 금번 결과로 연준(FRB)가 양적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여지 확대

2) 3월중 산업생산 예상 밖 상회

- 지난 4월16일(현지시간) 연준(FRB)은 3월중 산업생산이 전월비 0.4% 증가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0.2% 대비 가파른 증가세로 평년보다 추웠던 날씨로 유틸리티 사용이 6년래 가장 높은 5.3%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
-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이 2.9%로 2달 연속 증가, 소비재 생산도 1.1% 증가한 반면, 공장 생산은 0.1% 감소해 제조업 회복세 둔화 우려가 가중됨
- 전문가들은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 등의 영향으로 2/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

3) 3월중 주택착공건수 5년래 최대 급증

- 지난 4월16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3월중 신규주택착공건수가 전월비 7% 증가한 104만 건(연율)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 상회,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대치

- 특히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착공이 31% 증가,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
 - 이는 전문가 전망치 98만5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
- 반면, 단독주택 착공은 4.8% 감소한 61만9천 건으로 집계됨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G20 재무장관회의, 통화가치 평가절하 경쟁 견제 합의 예상

- 지난 4월18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입수한 성명 초안을 근거로 G20가 더 빠른 시일내에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시스템과 환율 유연성을 추구해야 하며,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 보도
- 반면, 일본의 공격적인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한편, 이번 G20 회의는 일본은행(BOJ)이 2년간 월간 채권 매입 규모를 7조 5천억 엔으로 두 배 증가, 시중 자금 공급량 역시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개최되는 행사로 G20 국가들이 어떠한 합의를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됨

2) 한국 증시 약세는 매수 기회

- 지난 4월18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자산운용 회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의 벨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진단, 한국 기업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
 -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점차 성장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언급,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
- 한편, 모비우스 회장은 엔화 약세를 한국 증시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으며, 엔화 환율 변동은 다른 나라보다도 고부가가치 및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

3) NYT, 최근 미국 경제의 ‘이상현상’ 지적

- 지난 4월15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최근 미국 경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
 - NYT는 최근 고용 감소, 세금 인상 등 소비자 신뢰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, 기업들의 실적과 증시는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
- 한편,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연준(FRB)이 경기부양을 위해 매달 수억 달러를 공급한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, 주식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
 - 미국 경제는 금년 1/4분기 약 3%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, 시퀘스터로 인한 영향이 올해봄부터 본격화되면서 2/4분기~3/4분기에 각각 2%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
- 이와 같은 비관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,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주 2% 상승
 - 미국 100개 대기업의 순이익이 올 2/4분기에 6.6% 상승할 것으로 추산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금 가격, 온스당 800달러 적정하다는 학술보고서 주목

- 지난 4월16일(현지시간) 마켓워치는 최근 금 약세가 본격화되면서 금값 폭락을 예고한 학술연구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
 - 이는 듀크대 재정학 교수인 캠벨 하비와 전 트러스트 컴퍼니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클로드 업이 지난 6월중 작성한 학술 연구 보고서
- 이 보고서에는 금 가격이 과대평가, 금의 적정가격은 31.1g(트로이온스)당 800달러(약 90만원)라고 주장
 - 이는 31.1g당 16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당시의 시세에 비하면 절반 수준
- 이들은 금 가격과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의 상관관계를 분석, 역사적 평균 비율이 3.2대 1이라는 결론을 유추한바 있음

2) 도요타 자동차, 미국내 렉서스 생산 계획 발표

- 지난 4월18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도요타 자동차가 자사의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도요타 자동차는 렉서스ES 일부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
 - 현재 해외 판매용인 렉서스ES는 일본 큐슈 공장에서 전량 생산해 북미와 중동,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
 - 이에 앞서 일본 매체들은 도요타 자동차가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렉서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한바 있음
- 한편, 도요타자동차는 렉서스RX 모델을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지만, 아직 미국에서는 렉서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